

종합·해설

4·27 재보선 판세 요동 '반뺨 승부'

김해 을 '野 후보단일화'로 김태호 초긴장 분당을 참여당 후보 불출마 '孫 돕겠다'

4·27 재보선 판세가 오리무중이다. 선거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여야 모두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좀처럼 승패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박빙의 접전이 펼쳐지고 있다는 게 여야 모두의 분석이다.

이번 재보선의 최대 승부처인 경기 성남분당을 보결선거의 경우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한나라당 강재섭 전 대표의 전·현직 당 대표 간 맞대결 속에 박스권 범위 내에서 엇지락 뒤치락하는 승패가 예상되고 있다.

일단 양 후보 모두 표를 잡으려 할 가능성이 큰 후보들이 불출마를 선언, 한 시름 뚫었다. 한나라당은 박계동 예비후보의 불출마 선언으로 여론 성향 표의 분산을 막을 수 있게 됐고 야권에서는 국민참여당 이종용 후보가 7일 민주당 손 대표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히며 불출마를 선언, 짧은 층의 표 결집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분당에 민주당 손 대표가 나왔지만 이 지역이 전통적인 여권의 텃밭이라는 점에서 '백중 속

우세' 지역으로 꼽고 있다. 민주당도 박빙 대결이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결국 30~40대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당락을 좌우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고교 및 MBC 사장 선출배간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강원지사 보선은



“편법 없는 사회 만들자”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편법과 특권이 통하지 않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최문순 전 의원이 엄기영 전 MBC 사장과 간극을 조금씩 좁히며 추격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인지도 면에서 엄 전 MBC 사장이 최 전 의원보다 앞서고 있지만, MBC 노조위원장 출신인 최 전 의원의 '밑바닥 출기' 전략이 조금씩 먹히고 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여전히 엄 후보가 10%포인트 정도 앞서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광재 동정론'이 도민들 사이에 점차 확산하면서 오차 범위 내까

지 격차가 좁혀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경남 김해를 보선은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간 협상이 급진전을 이루면서 '나홀로 선거'에 나선 한나라당 김태호 전 경남지사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야권이 단일후보를 내면서 '1대1' 구도가 될 경우 상당히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민주당 등 야권은 김 전 지사가 야권 후보들을 바짝 뒤쫓고 있지만 단일화 효과로 결국은 승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회 대정부 질문

국회의 7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추궁했다. 또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번역 오류가 발생한 데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외교통상부 문제**=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일본이 독도야욕을 노골화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조용한 외교 타령만 하고 있을 것이냐"며 "소극적 대응은 조용한 외교가 아니라 '무능외교', '수수방관외교'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은 "일본의 독도야욕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현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가 골골 조용한 외교, 차분한 외교 운운하면서 우물쭈물 지나가는 것이 전락이었다"며 "이것이 전부 실패로 끝났다"고 말했다.

◇**일본 원전사고**=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일본 원전사고와 관련 우리나라는 가장 인접한 국가이고 또 많은 교민이 거주하는 사실을 고려할 때 당연히 우리 측 원전 전문가들이 파견돼야 했는데 빠진 이유가 뭐냐"고 비판했다. 그는 또 "사고수습에 일본은 없고 정보공유에는 한국이



외교통상부 김중훈 통상교섭본부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EU FTA 비준동의안 철회동의안 처리를 위해 열린 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개를 숙인 채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없다. 외교 실패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며 정부를 질타했다.

같은 당의 유기준 의원은 "일본 대지진 및 원전 사태에 비춰 재난관리 분야의 한·중·일 3국간의 협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하루빨리 공조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협정문 번역 오류**=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한두 군데도 아니고 207개의 오류가 나온 것은 대통령이 사과하고 통상교섭본부장이 사퇴해야 할 일"이라고 몰아붙이고, "대책도 없이 비준에 동의하면 축산농가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FTA 협정문에 지속적인 대량의 오류가 나온 것은 정부의 무사안일한 태도가 중요한 요인이며 실무자는 물론 최상위 관리·감독자가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황식 국무총리는 "정부로서 할 말이 없다. 대단히 죄송하다"며 "통상교섭본부장을 포함해 관련된 사람들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중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파면감 아닌가"는 질문에는 "파면은 있을 수 없고, 국무위원이 아니니 해임 건의는 아니겠지만 번역 오류와 관련해 혼란을 가져오고 국민에게 실망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대통령과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가 지금껏 체결한 모든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의 한글본 번역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4·27 재보선 현장

조순용 후보 9일 선거사무소 개소

4·27 순천 국회의원 보결선거에 나선 조순용 예비후보가 오는 9일 오후 3시 순천 연향동 조은프라자 1층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표밭 다지기'에 나선다.



순천 주암 출신인 조 예비후보는 주암중과 광주북중, 광주일고, 서울대를 졸업했으며, KBS워싱턴특파원과 정치부장, 김대중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지상파DMB 방송국 CEO 등을 지냈다. 현재는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와 대한적십자사 자원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구희승 후보도 본격 선거전

4·27 순천 국회의원 보결선거에 나선 구희승(48) 예비후보가 8일 오후 순천시 조례동 태양

빌딩 2층에 선거사무소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을 펼칠 예정이다.



구 예비후보는 이날 개소식에서 "시민 여러분이 열렬한 지지를 보내주시면 이번 선거에 반드시 승리해 국회에 진출, 순천시민에게 봉사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짐 계획이다. 구 예비후보는 오는 12일~13일 공식후보 등록을 마친 뒤 선거유세 등 공식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선동 후보 보건·의료 정책 발표

김선동(민주노동당) 순천 국회의원 보결선거 예비후보는 7일 제39회 보건의 날을 맞아 보건·의료 정책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순천대의 과대학 유치 및 순천의료원과의 연계, 순천병원의 공공 산재병원 위상 강화를 통해 순천을 교육과 의료가 양립하는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또 현재 보건의료단체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건강보험 하나로'와 관련,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개인의 병원비 부담이 연 100만원이 넘지 않도록 하는 상한제를 도입해 건강보험만 있으면 모든 질병에 대한 보장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8일~12일 부재자 투표자 접수

4·27 재보결선거 부재자 투표자 접수가 8일부터 12일까지 닷새 동안 이뤄진다.

7일 전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7일 재보선이 이뤄지는 지역의 유권자 중 선거당일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은 12일 오후 6시까지 신고를 하고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다. 부재자 신고를 하려는 유권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12일 오후 6시까지 관할 구·시·군에 신고서가 도착해야 부재자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부재자 신고를 한 유권자는 18일부터 선관위에서 보내온 투표용지에 투표하고 27일 오후 8시까지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투표용지를 제출하면 된다. /최권익기자 cki@kwangju.co.kr

박지원 "대통령, 기름값·통신료 내려야"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7일 유류세와 통신비를 낮출 것을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에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원유가격 상승으로 부가가치세 세율이 올해 1월 만에 1조원 이상 늘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도 유류세 인하를 안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

다"며 "유류세 인하를 더는 미루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또 "통신비만 해도 이 대통령의 공약은 20% 내리겠다는 거였는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스마트폰으로 소용도 할 수 있어 실제 요금은 매우 싼 것'이라고 했다"며 "과거 달구지에도 쌀 신고 서울 올라오

고 선박으로 미국 다니는 계산방법 쓰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친서민 정책을 표방하는 만큼 서민 가계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기름값, 통신료를 인하시켜야 한다"면서 "최 위원장 같은 장관들의 말을 듣고 인화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실패한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방호 "취득세 감면 중앙집권적 사고"

정부와 한나라당이 취득세를 감면 등을 내용으로 추진 중인 3·22 부동산 대책에 대해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경권 의원은 7일 취득세 감면 추진과 관련,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세원인 만큼 취득세 인하를 발표하기 전에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해야 했다"며 "개정안 추진보다는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대체재원의 확보방안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병수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부처는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합의도 없이 취득세 감면이 발표돼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켰다"며 "결론부터 말하자면 취득세

감면은 옳은 부동산정책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방호 지방분권추진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정부의 취득세율 50% 인하 조치에 대해 "취득세에 손을 대면 지방재정에 큰 변화가 생기는데 지방자치단체와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전형적인 중앙집권적인 사고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홈페이지제작은 기본! 모바일홈페이지 까지!

도메인 호스팅
홈페이지만 만들면 이 모든것이 무료!
로그인 디자인 컨설팅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제작 상담 꼭!
(아이폰, 안드로이드 용)

상담문의 010-2637-9358
마블아이엔씨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KDB빌딩 1904호

남성 성기능 강화제

본제품은 왕라, 복분자, 구기자, 갈근 등 20여가지의 한약재로 제조하였으며, 특히 왕라는 허브의 일종으로 자양강장역할을 하여 다미아나 혈관과 호르몬계의 도움이 된다. 단백질을 저장하는 힘을 둔구어 근육을 강하게 해준다는 뮤쿠나프린스를 주성분으로 하여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당신의 자존심을 지켜줍니다.

설명이 필요없습니다. 직접 드셔보시고 확인하세요.

● 평소에 발기는 되나 지속성이 없거나 조루가 있는 분들은 성관계 전 약 2-3시간전에 1정을 섭취하면 1-5일까지도 지속할 수 있습니다.
● 발기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분들은 1일 4정을 3-7일 정도를 연속으로 섭취 하시면 발기가 잘됩니다.

문의 전화 010-7770-8138
주문즉시택배 무료배송
농협 302-0136-6325-61 권옥연

부실채권 (못받은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개인차용금·공증·판결문·각종못받은돈

선수금없음, 후불제(착수금)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수수료(회수 금액의 30%이내), 재산조사, 신용조사가능

● 텔레마케터 수시모집(여) (아르바이트·시간제가능·연령무관)
●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광주·전남·전북 센터장 모집)

★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

새한신용정보(주)
062)232-7770, 010-4608-6061 (담당: 김정수)

식당용 중고품
- 매매전문 -

냉장고 A/S전문 주방용품

광주·전남·북 전지역 출장환영

타 업체보다 더 드립니다!!

백두산 중고매장

직통 011-9430-1698

양동점 062) 521-6677
본점 062) 524-3377
북구점 062) 945-8778
첨단점 062) 945-8778